

화산과 함께 살아가기

화산 활동은 규슈 남부 지역을 형성했으며, 주민들에게 위험과 이점을 동시에 제공해 왔습니다. 화산으로 발생한 힘은 이 지역의 수많은 온천을 뜨겁게 데우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아름다운 화구호와 보석처럼 반짝이는 해변을 만듭니다. 반면에, 지역 주민들은 때때로 발생하는 화산재 퇴적물과 상존하는 대분출의 위험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부스키는 전 세계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규슈섬은 필리핀해판이 점차 유라시아판 아래로 밀려나고 있는 섭입대 위에 있습니다. 지구조판의 마찰과 지구 핵의 열로 인해 기반암이 녹아 마그마가 형성됩니다. 마그마는 단단한 암석보다 가벼워 상승하게 되고, 이는 지각에 산맥과 같은 용기를 만들거나 때때로 화산 분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부스키는 대부분 약 4만 년 전에 이와 같은 분출로 형성된 분지인 아타 칼데라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화산 활동이 지속되면서 지형이 형성되었고, 작은 화산들이 융기했다가 붕괴하면서 이케다호수를 비롯한 칼데라호가 생겨났습니다. 칼데라 분지에는 여러 활화산이 산재해 있고, 그중 가장 높은 산은 가이몬다케(924m)입니다.

맨 꼭대기에 안산암 용암 돛이 덮인 현무암 성층화산인 가이몬다케는 약 4,400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토양 기록에 따르면, 이 화산은 과거에 최소 12번 분출했으며 가장 최근에 있었던 분출은 885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분출로 쌓인 화산재 각 층은 화산쇄설물의 내용물에 따라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등 다른 색깔을 띠는 것입니다. 화산재 층을 역사적 기록과 함께 고려하면 유적지의 연대를 매우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부스키에는 가이몬다케 분출이 남긴 몇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화산 분출은 지형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정착지를 묻어버리거나 거주민을 몰아내어 사람들을 쫓아내곤 했습니다. 이는 결국 반도 맞은편에 근대 도시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영향은 좀 더 미묘합니다. 예를 들어, 가와시리 해변의 모래에는 약 3,700년 전에 있었던 화산 분출로 나온 감람석의 황록색 결정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고시마시 근처에 있는 사쿠라지마는 이 지역에서 활동이 가장 활발한

활화산입니다. 이 산은 정기적으로 연기와 화산재 구름을 뿜어냅니다. 풍향에 따라 화산재 퇴적물은 약 36km 떨어진 이부스키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약 150 만 명의 가고시마 주민에게 활화산이 보이는 곳에서 일하며 사는 것의 장단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위험 요소도 있긴 하지만 사쿠라지마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변화한 도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화산이 주는 이점 또한 분명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